

MAPS

NERVE



MAPS MAGAZINE
FASHION MANIFESTO FOR ALL HUMAN KIND
ISSUE 80 NOVEMBER 2014
"NERVE"

6,900 KRW 11



9 771976 063900

JUNG YEON DOO

INTERVIEWER / KWAK JUYON
PHOTO BY / JUNG JUYEON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를 만났다. 그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인생관을 배우는 것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생각과 꿈은 소중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과 꿈이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울 수 있는, 배울 만한, 배워야 하는 생을 만나는 건 행운이다. 나는 오랜만에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당신이 지나온 것들이 알고 싶다. 예술을 시작했을 때의 비리비리한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같다. 항상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다. 절실하고 막연하다.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계속해서 스스로 일깨우고 나아가야 한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은 예술가의 큰 야망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내오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새옹지마 같다고 느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7년에 '올해의 작가' 전시를 할 때 미술관에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었다. 한 전시가 끝나고 다음 전시가 시작되기 전 3주 동안 그곳에 세트를 짓고 영화를 찍어서 상영하겠다는 모험이었다. 여러 사람과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 그 작품이 뉴욕 현대 미술관에 상영되고 소장됐다. 한국 작가가 만든 영상 작품으로서 백남준 선생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신문에 '제2의 백남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다. 사실 그건 내가 거의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다. 평생 영상을 만들어온 사람도 아니었고 주변의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단순히 뉴욕의 어떤 큐레이터의 눈에 들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작품은 뉴욕 현대 미술관의 많은 컬렉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미디어아트 시작을 끊고 프런티어로 계시던 분과 이름이 같이 올랐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는가에 상관없이 그런 타이틀을 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다.

미술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그림에 흥미가 있어서 미술을 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신적 가치를 전달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방식으로 미술을 택한 것인가?

나는 그림을 지지리도 못 그렸다. 미술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즐기지도 않았다. 수업 시간에 손을 가만두면 집중을 못해서 샤프 펜슬로 분필을 조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대개 두 과목의 수업이 지나면 토르소가 하나 완성됐다. 학기가 끝나고 책상 안이 분필 조각들로 가득 찼다. 성냥갑에 넣어서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는데 그것이 담임 선생님의 귀에 들어갔다. 말이 좋아 토르소지 여자 몸이었다. 남자학교에서 여자 몸을 분필로 깎고 있었던 것이니 교무실에 야단맞을 준비를 하고 갔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선생님을 소개해주시면서 조각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셨다. 그러려면 그림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당황해하면서 그림을 시작했다.

조소를 전공했으나 지금은 사진 작업을 한다. 어떤 이유에서 사진이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라고 느꼈는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 일 년에 100일 정도 등산을 갔으니 오히려 산을 더 열심히 다녔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건 목조 시간에 나무 깎고, 철조 시간에 용접하고, 석조 시간에 돌 깎고 하던 육체적 노동이다. 자연과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았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도 조각을 계속했는데 거기서 코넬리아 파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선생님께서 내게 '네가 이해하는 만큼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지식의 상상력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의미였다. 나는 조각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반드시 조각으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해 스스로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을 배웠으면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회화를 배웠으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다른 건 안 하려고 했을 것이다. 무언가를 생각해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어떤 매체가 그 아이디어에 가장 적절한가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표현하기에 사진이 적절한 매체라는 걸 깨달았고 사진을 시작하게 됐다. 사진에는 어떤 아우라가 담겨 있다. 그 아우라는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사진에는 드라마처럼 스토리텔링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꼭 닮아서 스토리텔링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은 참 매력적이다.

예술 작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안에 내재한 정신의 중요성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형식과 내용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 예술은 소통의 도구다. 작품의 내용은 작가가 의도하지만 결국 보는 사람에 의해 완성되게 돼 있다. 내용은 보는 사람이 읽어냄으로써 만들어진다. 형식에서는 테크놀로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술가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된다. 관객이 아무것도 못 느끼면 그대로인 것이고, 작품이 공감되고 이야기되면 또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과정이 흥미롭다. 예술가와 작품의 매개체와 관객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작품이 많은 정보를 드러내면 설명적이 된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명백한 작품은 그 의미가 제한되기도 한다. 어떤 작품은 사회적인 담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이다.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예술품이 관객에게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친절한 작품이라고 해서 친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관객이 작품을 어떻게 읽더라도 그것을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술가의 태도다. 내 작품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그 작품이 잘못 읽혀지고 있는 것 전부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의 태도는 그 작품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상록 타워>는 한 아파트에 사는 서른두 가구의 가족을 사진 촬영한 작품이다. 그것을 상하이 비엔날레에 전시할 때 일부러 불친절한 방식으로 선보였다. 사진들을 벽에 나열하지 않고 16초 동안 화면이 천천히 전환되는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전시한 것이다. 옆에 아홉은 16초 동안 슬라이드 필름이 그대로 있는 것을 참지 않고 떠난다. 한 명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을 끝까지 다 본다. 픽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램프가 꺼지면서 16초 동안 서서히 어두워지는 방식이어서 앞의 필름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른 채 아주 부드럽게 다음 필름을 만날 수 있다. 이것에 매료된 사람은 계속 끌려서 보게 된다. 16초는 내게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그 속에서 한 명의 관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예술가와 작품과 관객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그 껍질을 벗겨보면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의미의 층들이 작품에 남아 있는 것이다. 많은 이가 현대 미술을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작업의 기저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고 싶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낀다. 요리를 해서 누구에게 주었는데 그가 맛있어 하면 나 또한 기쁘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기뻐한다는 이유로 기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는 무관한데도 기꺼이 주는 이유는 아이가 모유를 먹으면서 생존을 하는 만족감을 보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I am happy, because you are happy'의 구조가 계속 돈다. 내 작품을 누군가 보고 즐거워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즐겁게 된다. 예술을 나와의 싸움으로 보는 식의 독단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술 작품은 내게 거울과 같다. 내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감상한 사람들은 내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일종의 나 자신을 투영하는 방식인 것이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록 타워>라는 작품이 나왔다. 나는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비춰봤다. 지금까지 여러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예술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공유하며 친구가 됐다. 이런 과정들이 한 장의 사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는 단 하나의 작품이 있는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작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에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은 내가 없어도 잘 갈 것 같다. 지금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 작품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애착이 간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어 공개되고 나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마음이다.

당신의 예술이 사회에 가져오길 바라는 효과나 기능이 있는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장서나가면서 작업하는 예술가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모자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사회의 선두에서 예술의 지평을 제시하는 일은 아마 못할 것 같다. 나는 예술가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작품을 보고 평가해주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 혼자 잘 나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닌 것 같다. 작품이 한번 공개되고 나면 그 작품을 좋아하는 비평가, 수집가, 관객, 갤러리스트 등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은 연인이 떠난 후 슬픔을 이기기 위해 달리기로 대륙을 횡단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보다 느끼고 그를 추종한다. 것처럼 예술가는 바보 같은 자기 원동력으로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해나간다. 그 행위가 의미를 지니게 하는 건 작품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술가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술가는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고, 미술은 인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야 한다.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가?

요즘 1970년대의 모노크롬 페인팅이 재평가받고 있다. 삼십여 년간 잊혀졌던 단색화 운동의 작가들이 나이 칠팔십이 돼서 새롭게 보여진 것이다. 그분들이 새로워진 것은 아니다. 세상이 미술사에서 잊혀졌던 작가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이를 보면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과 예술 작품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시소 같은 재미있는 균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박관념은 가지지 않는다.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발버둥쳐도 새롭게 읽히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스스로 뭘 하는지 모르고 그것이 이전의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새롭다는 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새롭고자 해서 만든 새로운 걸코 좋은 작품이 되기 힘들다. 새로워진다는 건 스스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등의 목적성이 창작 정신의 본질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길을 잃기 쉽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창조 정신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내년 2월까지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왕칭송 작가와의 그룹전 <아시아 현대 사진 : 왕칭송·정연두>에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전시는 관객이 왕칭송 작가의 설치 작품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춤추는 중년남성이 벽지로 프린트된 작품 <보라매 댄스홀> 속에 들어가서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춤을 추는 공간으로 끝이 난다. 네 개의 공간의 시작과 끝이 관객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되는 구조가 흥미롭다. 그런 기획을 해낸 큐레이터의 안목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로서의 당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일상의 활동은 무엇인가?

나는 사람과의 만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 사랑 지니>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꿈을 묻고 그 꿈을 사진으로 구현해준 작업이다. 그런 작품은 스튜디오에서 혼자 해서 나올 수 없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인생관을 배우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진에는 그것의 표면만 찍힌다. 그 사람의 생각과 꿈,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사진이란 매체로 잡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내게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 가지는 미술 외적인 관심사가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어디까지가 미술이고 어디까지가 미술이 아닌지에 대한 경계선이 희미하다. 별로 건강한 삶은 아닌 것 같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예술 작품이 되고 안 되고의 하는 경계들이 모호해졌다. 이젠 예술의 관심사고 저건 예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식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면서 생기는 작은 일들까지 전부 내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 그것은 항상 내 작품에서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다. 미술 외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인데 내 삶에 있어서 외적인 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질문을 들으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대답하기 힘들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본다'와 '보인다'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미토에서 우연히 사진을 찍는 맹인 안마사를 알게 됐다. 흥미를 가지고 그를 만났는데 막상 찍는 사진들을 보니 너무 못 찍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미술관에서 받은 돈으로 카메라를 사드렸다. 그로부터 그는 매달 8000장씩 사진을 보내왔다. 지난 일 년 동안 몇만 장의 사진이 쌓였다. 그의 사진들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 환경 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찍은 것이다. 내가 그 길 사진들에서 느꼈던 것은 마술사 이은결 씨와 협업하여 만드는 <매지션스 워크> 그리고 <블라인드 퍼스펙티브>라는 작품에 반영됐다. 그 작품들은 우리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의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맹인 안마사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일상을 카메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보지 못하는데 찍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 미토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국가는 40킬로미터까지가 피난 지역이고 그 밖의 지역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의 터전을 원전이 가깝다는 이유로 떠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더러운 것은 닦으면 되지만 방사능은 눈에 보여 닦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우유, 채소, 생선이 괜찮은지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공포가 느껴진다. 11월에 미토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한다. 전시에서 그 맹인 안마사의 관점을 통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관점을 부각하려고 한다. 결국 미토의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작품에 대한 의미를 찾을 것인가 고민된다.

conversation ends



Miss Sparkle Sprinkles the Magic



Rabbit Family Hopping Around

Location # 1



Location # 8



Borame Dance Hall



Evergreen Tower